조선시대 불서 속 人名 '총망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 순천대 남도硏 '조선 불서인명 DB' 공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불교 전적 1214종 조사
9만 3415명 인명 파악 입력
지역 · 소임 등 상세 분류해
"화승 등 계보 파악에 도움"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 전적에 등장한 인물들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가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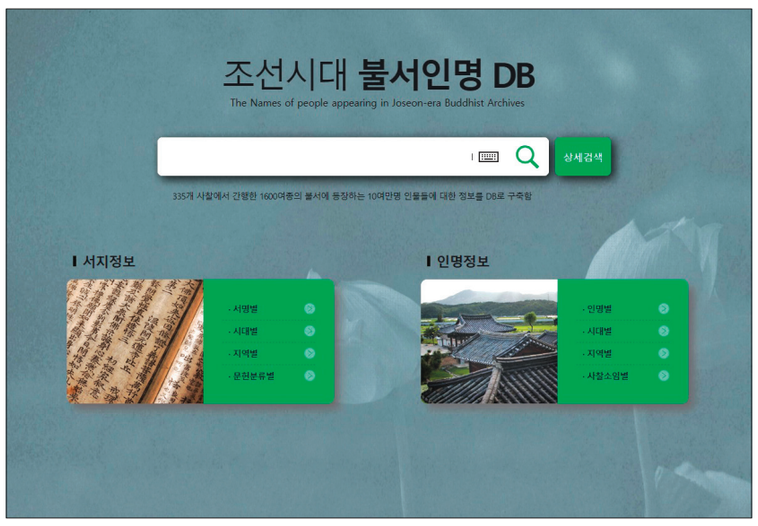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는 3월 14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이 운영하는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를 통해 '조선시대 불서인명 DB'를 공개했다.

'조선시대 불서인명 DB'는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조선시대 간행 불교 서지 인명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3년 동안 총 1214종에 달하는 조선시대 사찰 간행 불교 전적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인명이 수록되지 않은 89종을 제외한 1124종의 불서 인명 정보를 DB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불교 전적 속 등장인물은 총 9만 3415명에 달한다. 1종당 77명의 인물이 등장한 셈이다.

'조선시대 불서인명 DB'는 서지 정보와 인명 정보로 나눠 정보를 제공한다. 서지 정보는 △서명별 △시대별 △지역별 △문헌분류별로, 인명 정보는 △인명별 △시대별 △지역별 △사찰소임별로 세분화돼 검색하도록 했다.

제공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매우 디테일하다. 서지 정보에서는 △서명 △간행지 △간행처 △간행년 △총책수 △변란(邊欄, 판면을 둘러싼 먹줄) △광곽(匡郭, 서책 책장의 사주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선)크기 △행자수 △어미(魚尾, 물고기 꼬리 모양의 접지표) △변상(變相) △간기(刊記) △서발문 △합집여부 △분류 △소장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된다. 인명 정보에서는 △인명위치 △간행역할 △사찰소임 △겸직 △품계(品階) △법계(法階) △법호(法號) △당호(堂號) △승속구분 △호칭 △가족(사승)관계 △소속 지역 △소속 사찰 등의 상세한 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14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운영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된 '조선시대 불서인명 DB'의 화면 모습.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3년 동안 조사한 불교 전적 속 등장인물 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같은 인물 정보DB는 향후 불교사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대다수의 조선시대 간행 불서들은 서문과 발문들이 수록됐고, 간행 배경과 동기, 참여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분석하게 되면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유통 경향이나 지역별 간행 불서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불서 간행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방대한 인명을 채록한 인명사전 편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탑재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통합대장경 · 한국불교전서 · 고려 교장을 비롯해 변상도 · 근대불교잡지 · 근대불교문헌 등 한국불교 전반 기록이 망라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조선시대 불서인명DB' 탑재됨에 따라 연구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책임연구자인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 전적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수많은 불교 전적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DB 구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번 연구 사업으로 9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불교 전적 속 인물들을 확인하고 망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명이나 서지를 개인 연구자가 확인하려면 1, 2년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 같은 기초 연구는 후대 불교사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는 한국불교 서지 기록 전반이 망라돼 있다. 조선시대 불서 인명 DB를 이곳 아카이브에서 활용하는 게 연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며 "모두 불교학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밝혔다.

발굴해도 안풀리는 '황복사지' 수수께끼

문화재청 발굴 성과 학술대회
전문가들 "정체불명" 한목소리
왕경사찰로서 역할한 것 추정

보통 절터를 발굴하면 그 사찰의 명칭과 사세, 면모가 확인된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수께끼인 절터가 있다. 바로 경주 황복사지다.

경주 낭산(사적)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황복사지는 654년(진덕여왕 8년)에 의상 스님(625~702)이 출가한 곳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고찰이다. 1942년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사리함서 '종묘성령선원가람(宗廟聖靈禪院伽藍)'이라는 명문이 확인되며 종묘적 기능을 한 왕실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이런 황복사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시 · 발굴조사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했고,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했다. 3월 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문화재청 주최 학술대회는 그간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황복사지가 아직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찰임에 동의했다.


경주 황복사지 발굴 중 확인된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기조 강연을 진행한 주보돈 경북대 명예교수는 "새로 출토된 고고자료가 논란됐던 문제점을 부분적이나마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황복사지 발굴로 얻어낸 자료들은 그런 과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트린 듯한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낭산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중생사나 능지탑 등도 사천왕사 이후에 창건됐다. 그럼에도 선덕여왕 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 황복사만이 예외적으로 사천왕사보다 앞서 맨 먼저 낭산에 창건된 사찰로 보는 건 부자연스럽다"면서 "황복사지를 황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사리함기'가 보여주듯이 '종묘성령선원'의 성격을 띤 가람 정도로 불러둠이 가장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는 '황복사지'라는 명칭 대신 '구황동 사지'로 이름을 변경해 황복사지 삼층석탑과 사지의 관계를 고찰했다. 그는 중심의 목탑지로 추정 유구를 종루나 경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황복사지를 신문왕이 죽고 난 뒤 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사찰로 석탑이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신성민 기자

'염처경'으로 살피는 '마음챙김'

불교심리치료학회 4월 22~23일 세미나

1979년 존 카밧진(John Kabat-Zinn)이 개발한 MBSR(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여러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마음챙김'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명상 훈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서구에서 개발된 '마음챙김'이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을 때에는 불교에 기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와 관련없음을 강조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의 시작은 붓다에 의해 창안된 수행 방법인 '팔정도' 중의 하나인 '정념(samma - sati)'과 관련 있으며, 이를 〈염처경(Satipatthana)〉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서구적 마음챙김과 불교 전통의 마음챙김 수행을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오는 4월 22일 오후 7시30분, 4월 23일 오전 10시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줌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다 깊이, 다시 보는 마음챙김- 염처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뒤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뤄진다.

참가 희망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kabp@daum.net)로 접수하거나 http://bit.ly/2022KABP로 신청한 뒤 참가자 이름으로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반인은 5만 원, 학생은 3만 원이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마음챙김 본연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10)2217-6921

신성민 기자

근대 풍경 속 마산 정법사를 읽다

정법사, 4월 8일 창건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올해로 창건 110주년을 맞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법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근대 풍경'을 주제로 창건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912년 창건된 정법사가 근대기 마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대중포교를 해왔는지 고찰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은 '마산 포교당 정법사 대부모은중탑 고찰'을, 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마산포에 있어서 마산포교당의 지리적 상징성'을, 제점숙 동서대 아시아학과 교수는 '마산포교당의 교육사업 현황과 역사적 의의'를 각각 발표한다.

(055)246-8393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